

33년 금융맨의 남다른 고향 사랑

‘전북 군산 임피 출신’ 채성한 국민은행 선임부장
고향 동문 가교 역할... 출향 인사 화합에 힘 보태

서울의 금융 중심지에서 33년 넘게 국민은행 맨으로 살아왔지만, 채성한 국민은행 선임부장의 마음속에는 늘 자신이 태어난 고향 전북 군산 임피면의 고향 들녘이 자리하고 있다.

채 선임부장은 군산 임피면에서 태어나 임피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전주로 전학해 전라중·전주중·전북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92년 국민은행 공채로 입행하며 금융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가 은행 생활을 시작한 시기는 대한민국 금융사의 거대한 격변기와 맞물린다.

1998년 금융실명제,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그는 한국 금융 변화의 현장 중심에서 한국 금융의 변화를 직접 경험했다.

국민은행 외환업무부와 자금부, 기업금융 심사역 연구원, 영업점 등 은행의 주요 핵심부서와 영업점을 두루 거친 그는 2013년에 임행 동기 중 맨 먼저 지점장으로 발령받아 10년간 지점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그리고 2023년 임금피크직무로 전환해 2027년 1월 정년 때까지 영업추진부에서 마케팅직무를 담당하고 있다.

채 선임부장은 “IMF 시절에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다”며 “금융이 흔들리면 국민 삶 전체가 흔들린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그의 진기는 단순한 업무 성과에만 있지 않았다.

그는 고객과 직원 모두를 품는 ‘사람 중심의 금융’을 실천해 온 인물로 평가받는다.

2013년부터 시작된 지점장 생활은 그의 또 다른 전성기였다. 건대역지점과 동영도지점 청담동지점, 문래동지점 등을 이끌며 여러 차례 우수지점 표창과 다양한 수상 실적을 거뒀지만, 그는 늘 자신보다 주변 사람들의 공을 먼저 이야기했다.

“지점장은 결국 사람을 관리하는 자리입니다. 고객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원들과 함께 성장해야 조직도 살아 납니다.”

금융인으로 드물게 33년 넘게 한 직장을 지켜온 그는 이제 정년퇴직을 8개월여 앞두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은퇴를 ‘바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로 받아들이



고 있다.

현재 채 선임부장은 국민은행 임행 동기회 회장을 15년째 맡고 있으며, 전주교도소 재경동창회 대외협력본부장과 전북대학교 재경동창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며 고향 선배들과 동문을 위한 가교 역할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도민회 중앙회 행사에도 꾸준히 참여하며 출향 인사들의 화합과 네트워크 형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주변에서는 “앞에 나서기보다 뒤에서 묵묵히 돕는 스타일”이라고 평가한다.

그의 고향 사랑은 남다르다.

채 선임부장은 “전북은 역사와 전통이 깊은 고장이지만 산업과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부분이 있었다”며 “출향인들이 조금 더 힘을 모아 전북 발전에 역할을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전주를 찾을 때마다 예전 전주 중심 상권이 침체된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깝다”며 “채남금 개발과 대형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전북이 인구도 늘어 다시 활기차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고장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끊임없는 자기 계발 역시 그의 삶을 설명하는 중요한 키워드다.

그는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후 은행원이 된 후에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한국재무설계사(AFPK), 외환전문역, 자금운용역, 파생상품투자상담사 등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또한 핀란드 알트대학교 E-MBA 과정과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쳤고, 캘리포니아 주립대 최고위 과정, 서울대 패션산업 최고위 과정 등을 거치며 쉬지 않고 한 평생 교육을 통한 배움을 이어왔다. 최근에는 명지대학교 부동산학 박사과정에도 지원했다.

그는 “정년 이후에도 공부와 연구를 통해 사회에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기고 싶다”며 “사람은 평생 배우고 성장해야 자신이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따뜻한 인품은 가정에서도 이어진다. 아들은 고용노동부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며, 딸은 미국 뉴욕 파슨스 디자인스쿨 대학원에서 산업디자인을 공부하게 됐다.

채 선임부장은 “내가 편하게 살려면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야 한다는 걸 인생을 통해 배웠다”며, “베를로 나누는 삶이 행복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말하며 “타인에 대한 배려와 나눔 정신”이 바로 인생의 키워드라고 말했다.

주변에서는 그를 두고 “성과보다 사람을 먼저 챙기는 금융인”, “겸손함 속에 품격이 있는 인물”이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그는 인터뷰 내내 “저보다 훌륭한 사람이 많다”며 자신을 낮췄다. 하지만 그런 겸손함이 오히려 그의 훌륭한 인품과 진정성을 더욱 빛나게 했다.

성과와 경쟁이 우선시되는 시대 속에서 채성한 선임부장의 삶은 우리에게 목격할 울림을 전하고 있다.

고향을 잊지 않고, 사람을 품으며, 끊임없이 배우고 묵묵히 공물체를 위해 헌신해 온 전북 출신 한 금융인의 33년이 주는 감동적인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깊은 울림의 답을 주고 있다.

/이만호 기자



새남금 스마트 수변도시 탄소저감 '맞손'

새남금개발공사(이하 공사) 사장 나경관은 28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새남금 스마트 수변도시 탄소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변도시를 탄소저감 도시로 만들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협약은 새남금 사업의 녹지 조성 과정에서 탄소 흡수능을 높이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양 기관은 도시녹지 조성 및 자생식물 보전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도시건강성 증진을 위한 다층식재 모델 특기기술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공사는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 수변도시 방풍림과 녹지 구간에 탄소저감형 식재 모델을 적용하게 된다.

이후 공사는 산림청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을 통해 스마트 수변도시의 탄소저감 효과를 공식적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장수 계북면민의 장 애향장 수상자 선정

장수군 계북면은 ‘제7회 계북면민의 장 애향장 수상자’로 임명순 계북면 의용소방대장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임명순 대장은 현재 계북면 의용소방 대장으로 활동하며 화재 예방과 안전 사고 대응 등 지역 안전을 위한 현장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각종 지역 행사와 민정 추진에도 적극 참여하며 지역사회 화합과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특히 임명순 대장은 지난 2022년 계북면 작은도서관 명예관장을 역임하며 주민들의 문화생활 향상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힘써왔으며, 2021년에는 농가주부모임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 등을 수상한 바 있으며, 평소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한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주민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임명순 대장

/이만호 기자



김제시, 청년농업인 정착지원 기본교육 진행

김제시는 지난 22일 2026년 청년후계농 선정자 50명, 후계농업인 15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년농 및 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세부적인 지원사항과 의무사항 전달을 통해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전달과 청년 후계농 선정자들 간의 소통의 시간을 갖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날 교육은 시가 추진 중인 다양한 청년농업인 사업 안내와 농업경영 관리·경영분석 교육을 통해 청년 후계농들이 체계적이고 명확한 영농계획을 수립해 안정적인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따른 미래 농업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청년 후계농들과 뜻 깊은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장수소방서, 폭염 대비 구급활동 대책 본격 가동

장수소방서(서장 한동규)는 올여름 극심한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2026년 폭염 대비 구급활동 대책을 본격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을 통해 장수소방서는 관내 119구급대와 예비출동대인 펌볼러스를 폭염 대응 체제로 전환했다. 출동 차량에는 얼음조끼, 얼음팩, 생리수 등 폭염 대비 구급장비를 완벽히 운영질량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비를 마쳤다.

장수군은 농촌 지역 특성상 고령층이 늘, 발 등 야외 작업 중 온열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지난해 전체 폭염 구급출동에서도 바다 강, 산 낚시 등 야외 활동 중 발생한 환자 비율이 24%에 달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교도소 나누미장학회, 17년째 지역 학생들에 장학금 지원

학생 11명에게 총 550만원 전달
누적 장학금 1억3000여만원

전주교도소 나누미장학회가 지역 학생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전하며 17년째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전주교도소(소장 주정민)는 28일 교도소 인근 초·중·고등학교 학생 11명에게 각각 50만원씩 총 5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 내 각 학교 교정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에게 전달됐다.

전주교도소 나누미장학회는 교도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지난 2008년 설립한 장학회로, 지금까지 총 1억 3340만원의 장학금을 지역 학생들에게 지원해 왔다.

특히, 도움주기를 희망하는 직원들의 급여에서 작은 정성을 모아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으며, 지역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데 표적인 지역사회 공헌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주정민 전주교도소 소장은 “학생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교정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라사랑 정신 확산... 전은 목련회, 국립임실호국원 묘역 봉사

JB금융그룹 전북은행 목련회가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국립묘지 묘역 정화 봉사활동을 펼쳤다.

전북은행 목련회는 지난 28일 국립임실호국원에서 2026 국립묘지 1사 1묘역 가꾸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전북은행과 국립임실호국원이 지난 2017년 결연 협약을 맺은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목련회 회원과 자녀 30여 명은 국가유공자가 안장된 321~322구역 묘역 1,549기에 태극기를 직접 꽂고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묘역 정비와 함께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리며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국립임실호국원은 현충탑 참배와 영상 시청 프로그램



램 등을 제공해 참여자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현들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지원했다.

/오상근 기자

방치된 빈집 정비해 농촌유학가족에게... 덕과면 희망보금자리 '주목'

남원시 덕과면이 방치된 빈집을 재생해 농촌유학 가족을 위한 보급자리로 탈바꿈시키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최근 타 시·도에서 접입한 농촌 유학 가족이 성공적으로 입주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부터 추진해 온 빈집 발굴 및 주거 지원사업의 결실로 빈집 매입 사업 등에 이어 추가적인 입주 사례를 만들어 내며 안정적인 주거 체계를 다져가고 있다.

이번 사업은 관내 주거 자원을 발굴하고 남원시청 건축과의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을 연계해 추진, 해당 주택은 덕과초등학교와 인접해 농촌유학을 희망하는 학부모들 사

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동안 가족 체류 공간이 부족해 전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덕과면은 빈집 전수조사를 통해 잠깐 비어있던 공간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쾌적한 주거 시설로 하나둘씩 바꿔나가고 있다.

박종만 덕과면장은 “젊은 가족 유입으로 학교와 마을에 생기가 돌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정주 여건 개선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우 기자



전기안전공사, 부부 소통 프로그램 운영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저출생 위기 극복과 가족친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부부 소통 프로그램 운영에 나섰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구 신라스테이에서 ‘제2회 부부 소통캠프-부부의 시작, 가족의 완성’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캠프는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결혼 7년 이내 직원 부부 16쌍이 참여했다. 행사는 ‘부부의 날’의 의미를 담아 5월 21일에 진행됐다.

특히 지난해 열린 제1회 부부 소통캠프에는 20쌍의 직원 부부가 참여했으며, 이후 직원 가정에서 총 8명의 자녀가 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부부 소통캠프 외에도 다양한 가족친화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결혼 직원 축하금 지급과 휴양소 지원 임신 직원 대상 모성보호용품·영양식품 지원, 배우자를 포함한 임신부 검진 휴가, 임신기 단축근로, 육아휴직 활성화 등 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운봉농협 청년회, 농특산품 축제 수익금 300만원 기탁

남원시 운봉을 행정복지센터는 최근 열린 남원시 농특산품 축제에서 운봉농협 청년회(회장 이정규)가 축제 부스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금 300만 원을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성금으로 기탁했다고 밝혔다.

운봉농협 청년회 회원들은 축제 기간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품을 대내외에 홍보 판매 부스를 운영하며 지역 농산물 알리기에 적극 나선 것으로, 이들은 부스 기획 단계에서부터 “축제를 통해 얻은 수익은 우리 지역의 가장 어려운 곳을 밝히는 데 사용하자”고 뜻을 모았다.

이정규 청년회장은 기탁식에서 “회원들이 밤낮없이 함께 고생하며 모은 소중한 수익금인 만큼, 우리 주변에서 외롭고 힘들게 지내시는 소외계층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위와로 희망으로 전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우 기자